

‘물환경 조사법’

新井正 著/朴鍾琯 譯

(청문각 발행)

소개하는 책은 물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볼만 한 흥미로운 책이다. 기상, 하천, 지하수, 수질 등을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기구나 도구 등을 활용하여 간단하게 관측하고 조사하는 방법들을 소개하였다. 저자는 일본 입정대학 지리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아라이 다다시 교수이다. 그는 20년 이상의 교육경험을 토대로 학생이나 시민단체 등 비전문가들도 물 조사를 해볼 수 있도록 본 서를 출간하였다. 저자는 최근 “조사는 값비싼 기계를 사용해 PC로 처리한 자료만이 정확한 자료인 듯한 분위기”가 만연되어 있으나 “학생과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물을 조사할 때 돈이 들지 않고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고 한다.

이 책의 번역자는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박종관 교수이다. 그는 지리학분야에서 수문학을 전공하였다. 번역자는 또한 경실련 등에서 적극적인 시민환경운동을 지원하고 있으며, 수자원학회의 논문집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. 번역자는 이 책을 ‘바로 뚝 물조사법’이라고 소개하고 있다. 이 책은 자연을 관찰하는 기초부터 실제 조사까지 쉽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여 이를 번역하였다고 한다.

이 책은 기초편과 실천편 두 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. 기초편에서는 조사를 위한 사전준비 사항, 안전사항, 그리고 자연현상을 나타내는

기상, 하천, 수질 등 기본적인 인자들의 관측방법을 설명하고 있다. 실천편에서는 실제조사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, 하천조사, 호소조사, 지하수조사, 용수조사 그리고 적설조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. 조사방법에서는 현장자료의 정리방법도 소개하고 있어 비전문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참고할 만한 하다.

이 책은 미국의 지질조사국이나 세계기상기구 등이 발간한 수문관측지침서와는 다른 차원의 책이다. 그러한 지침서는 전문가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게 기술되어 있다. 그렇다고 이 책의 내용이 아마추어적이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. 같은 내용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해 볼 수 있도록 쉽게 기술했다는 얘기이다. 물을 다루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책이다. ☺

- 김 승 -